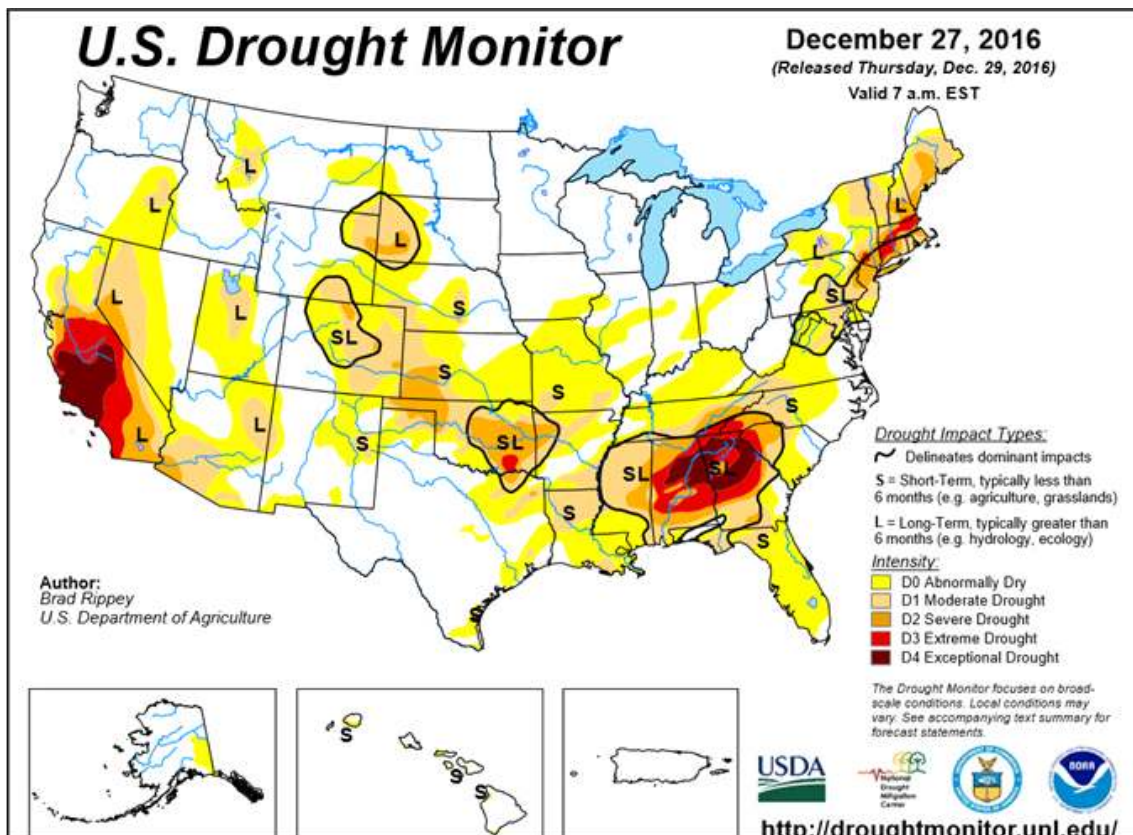


1월 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4, No. 1)

□ 미국 기후 현황(12/26~01/01)

주 초반 노스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에서는 눈보라가 몰아쳤고, 중서부 북부 지역에서도 눈비가 섞여 내렸다. 뉴 잉글랜드에서는 12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 남동부에서는 비가 내리면서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습을 부리던 가뭄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걸프 만 일대와 남동부 내륙 지역에서는 2016년의 마지막 한 주 동안 2~4인치 이상의 비가 내렸다. 이와 달리 남부 평원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기습을 부리고 있으며 목초지와 밀 등의 생육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서부 전역에서는 평년에 비해 기온이 낮은 날씨가 이어졌다. 북서부에서는 제법 많은 양의 비 또는 눈이 내렸고,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부터 남서부 일대에서도 비가 내렸다. 북부 내륙 산간지역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머물면서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15°F까지 낮은 날씨가 이어졌다. 반면, 동부 평원에서부터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은 날씨를 보였다.



□ 농업 현황 요약(12/26~01/01)

많은 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대평원 남부에서부터 미시시피강 하류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0°F 이상 높았다. 이와 달리 북서부에서는 평년에 비해 추운 날씨를 보였는데, 로키산맥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0°F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많은 지역에서 2인치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했으며, 걸프 만 연안 중부 지역에서는 4.5인치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12/25~12/31)

■ 유럽: 프랑스에서부터 영국 남동부, 독일 남부 및 발칸반도 북부 등의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와 함께 평년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겨울밀 등은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지중해 인근 지역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져 농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스페인 북부에서는 일시적으로 가뭄이 발생했다. 독일 동부와 발틱해 인근 지역에서는 눈이 내렸다(강수량 환산 시 3~30mm 내외).

■ 구소련(서부): 우크라이나 중부와 러시아 남부 및 중부 지역에서는 눈이 5~20cm 내외로 쌓여 있어 겨울밀을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다. 러시아 중부와 볼가 일대에서도 10~25cm 내외의 눈이 농지를 덮고 있어 작물을 동해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다.

■ 동아시아: 동아시아 지역 주간 기후현황 요약은 2017년 3월부터 재개될 예정임.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등에서는 비가 내렸다. 보타 남부의 호주 남동부에서도 10~5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이번 비로 겨울작물의 수확작업이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서호주에서도 5~20mm 내외의 비가 내렸고, 농작업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밀 재배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져 수확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서호주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3°C 정도 높았고, 남부와 동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2~6°C 정도 낮은 날씨를 보였다.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와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에서 40°C 초반까지 오르기도 했다.

■ 아르헨티나: Buenos Aires 북부, Cordoba, Corrientes 등 북동부 및 중부 지역에서는 50~14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La Pampa, Buenos Aires 등 남부지역에서는 맑은 날씨를 보였고, 수확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남부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3~5°C 정도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후반까지 올랐다. Santiago del Estero, Cordoba 북부 등에서는 기온이 평년에 비해 1~2°C 정도 높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낮 최고기온은 40°C 이상 오르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옥수수과 대두의 파종률은 12월 29일 기준 각각 73%, 83%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는 약간 낮은 수치이다. 밀의 수확률은 84%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해 같은 기간의 75%에 비해서는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 브라질: 남부의 옥수수, 대두 재배지 일대에서는 비가 내렸다. Santa Catarina 중부를



제외한 Rio Grande do Sul 북부에서 Sao Paulo 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25~50mm 내외의 비가 내렸다. Rio Grande do Sul 주정부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에 의하면 12월 29일 기준 대두와 옥수수의 생육상황은 좋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ao Paulo, Minas Geras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중반까지 오르면서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보다 북부의 Mato Grosso에서는 15~50mm 내외의 비가 내렸지만, 그 밖의 중부-서부 일대에서는 대체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였다. 북동부 내륙의 Bahia 서부, Tocantins, Piaui, Maranhao 등에서는 낮 최고기온이 30°C 후반까지 오르기도 했다.